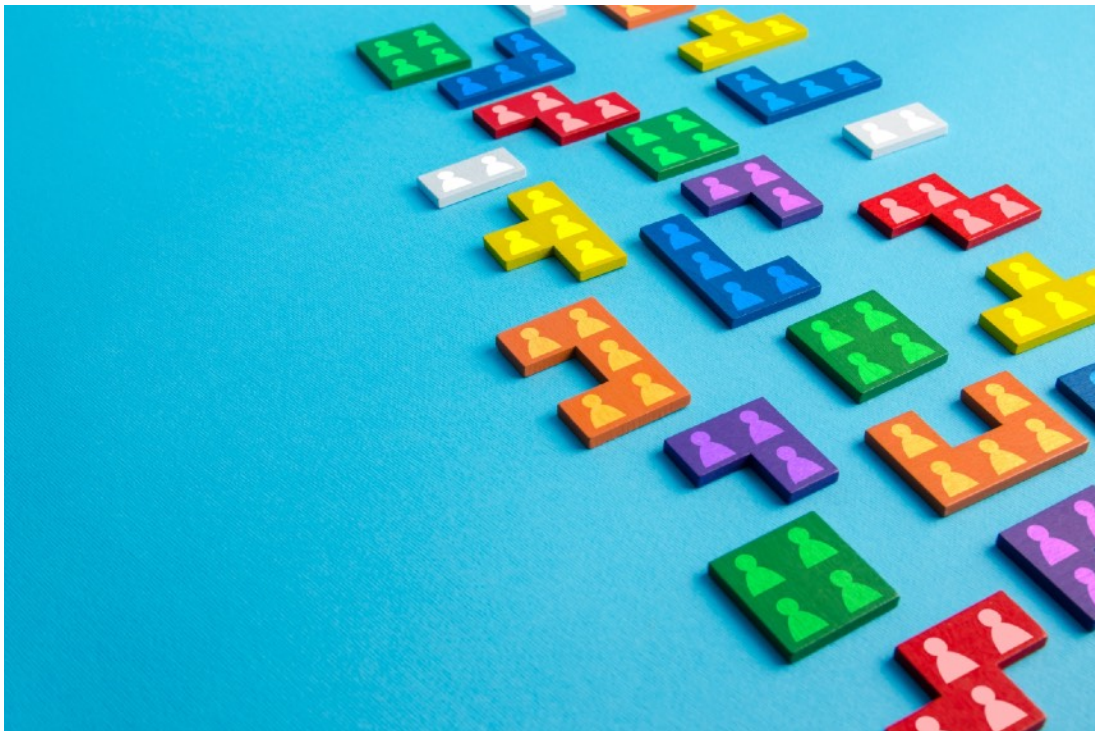


주요 내용

1. [한국교회 5060세대 분석]
5060세대, '신앙은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이다!'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1) 초·중·고 사교육 현황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5060세대, ‘신앙은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이다!’

5060세대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정점을 향해 가는 세대이다. 20대의 찬란한 시절을 지나 3040세대의 치열했던 시절을 겪고 이제 이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리더의 위치에 올라 화려한 정점에 올랐으면서 또 은퇴를 앞둔 세대이다. 가정적으로는 자녀들도 이제 성장하여 부모의 손에서 떠나는 시절을 맞은 세대이다. 그동안 분투했던 삶에서 벗어나 안정을 차지하나 하고 한숨을 돌리고 나면 앞으로는 은퇴라는 현실에 맞부딪히게 되고, 뒤로는 맹렬하게 뒤쫓아 오는 후배들이 버거워지는 세대이다. 사회에서는 이들을 향해 끈대니, 기득권이니 온갖 지탄을 받으면서 나는 열심히 살았던 것 밖에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당혹감에 마음이 불편해 진다.

이러저러한 삶의 경로를 이어 오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삶과 신앙에 영향을 주면서 5060세대는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한국교회 주력 리더십 그룹인 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전보다 더 깊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신앙은 ‘역경을 이기는 힘’이라 생각한다. 넘버즈 138호에서는 5060세대의 신앙의식을 살펴 보면서 5060세대를 좀 더 이해하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060세대의 신앙의식 조사

본 조사는 한국교회탐구센터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그리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공동으로 한국 교회의 핵심 주도층인 5060세대의 신앙의식과 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2021년 10월에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본 조사 결과 전체는 한국교회탐구센터 홈페이지에 5060세대에 대한 다른 글과 함께 「오팔(OPAL) 세대의 신앙생활 탐구」라는 제목으로 올려져 있다.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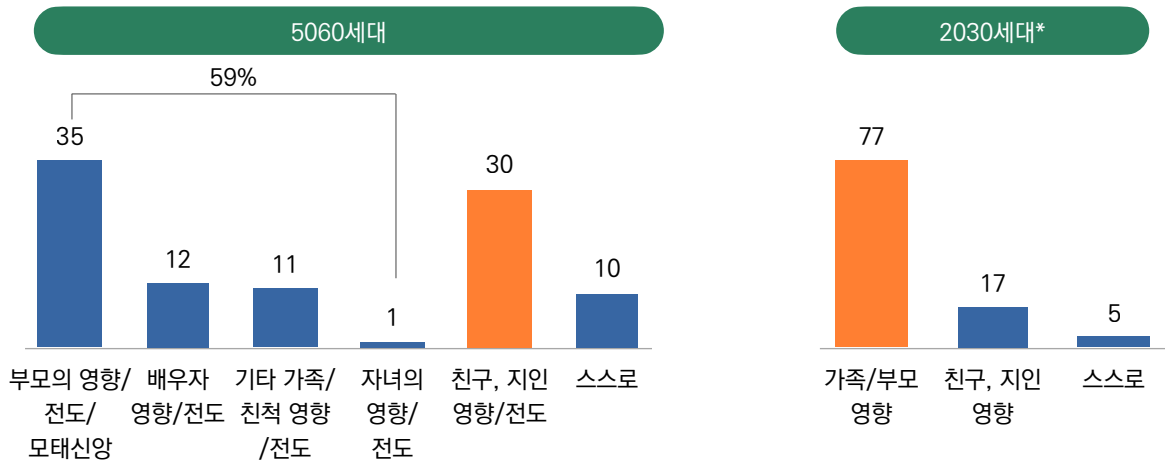
구분	내용
• 조사 대상	만 50~69세 개신교인 남녀
• 조사 지역	전 국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표본 규모	총 700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지역/성별/연령 비례할당추출 - 2015 인구센서스의 개신교 인구에 근거
• 표본 오차	무작위 추출법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7\%p$
• 조사 기간	2021년 10월 20일 ~ 10월 25일 (6일간)
• 조사 의뢰 기관	한국교회탐구센터/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목회데이터연구소
• 조사 수행 기관	(주) 지앤컴리서치

01

5060세대의 신앙을 갖게 된 계기, 2030세대 대비 ‘친구/지인 전도 또는 스스로’ 비율 높아!

- ▶ 5060세대가 신앙을 갖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부모’ 요인이 35%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와 ‘기타 가족/친척’ 영향은 각각 12%와 11%로서 ‘가족/친척’ 요인을 모두 합하면 59%였다. ‘친구/지인’ 요인은 30%였고 ‘스스로’는 10%였다.
- ▶ 2030세대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가족/친척’이 77%, ‘친구/지인’이 17%, ‘스스로’가 5%인 것과 비교하면 5060세대는 ‘친구/지인’ 전도와 ‘스스로’의 비중이 2030세대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신앙을 갖게 된 계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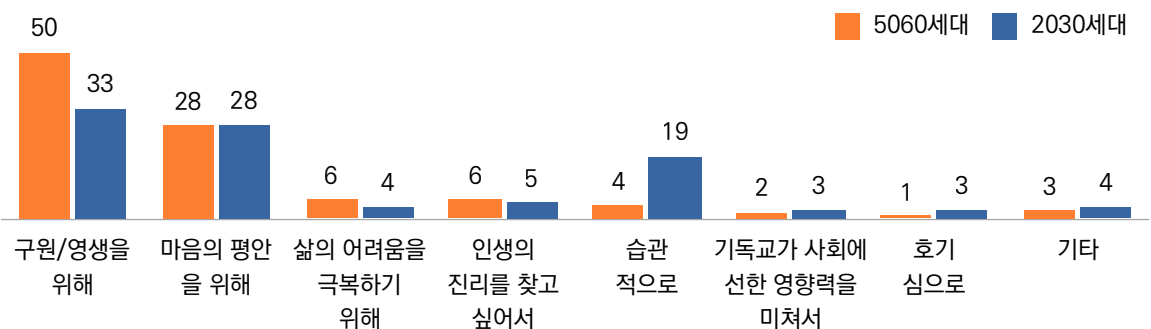


*2030세대 조사 결과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청년의 사회 및 신앙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 2021.1.11(만19~39세 기독교 청년 700명, 온라인 조사, 2020년12월 30일~2021년 1월 5일 조사). 이 결과 전체는 한국교회탐구센터 홈페이지에 「코로나 시대, 기독교청년들의 신앙생활탐구」라는 제목으로 올려져 있으며, 일부는 「넘버즈」 83호, 84호에서 다루었다.

◎ 신앙생활 이유, 5060 ‘구원/영생을 위해’, 2030 ‘습관적으로/마음의 평안!’

- ▶ 5060세대가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영생을 위해’가 50%이었고, ‘마음의 평안’이 28%이었다. ‘습관적’으로는 4% 밖에 되지 않았다.
- ▶ 2030세대와 비교하면 ‘구원/영생’을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신앙을 갖게 된 계기에서의 차이와 나이가 들면서 신앙 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확고해지는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림] 신앙생활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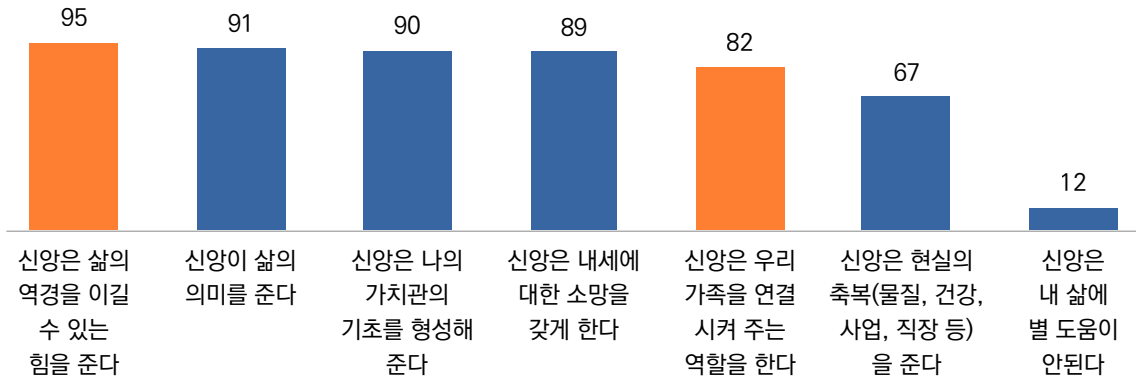
*2030세대 조사 결과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청년의 사회 및 신앙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 2021.1.11(만19~39세 기독교 청년 700명, 온라인 조사, 2020년.12월 30일~2021년 1월 5일 조사).

02

5060세대의 신앙,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이다!'

- ▶ 5060세대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일까? 그들에게 신앙은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95%)이다.
- ▶ 신앙이 이런 힘을 주는 것은 삶의 의미를 해석하는 관점(91%)과 가치관(90%)을 신앙이 형성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내세에 대한 소망(89%)이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앙의 눈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 ▶ 또한 신앙은 '가족의 연결고리'(82%) 역할을 한다.

[그림] 신앙의 의미 (동의율='매우+약간' 그렇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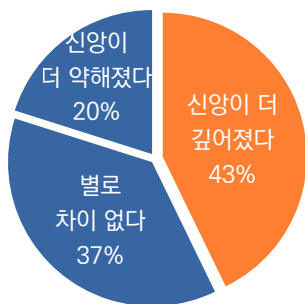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임

◎ 5060세대, 신앙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 ▶ 과거 자신의 30~40대와 비교했을 때 5060세대는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응답이 43%로, '약해졌다' 20%의 두배가 넘는 비율로 신앙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응답했다.
- ▶ 그러나 절반이 조금 넘는 응답자가 신앙이 '약해졌다'(20%)거나 '차이 없다'(37%)고 응답한 것을 감안하면 신앙 발전에 대한 아쉬운 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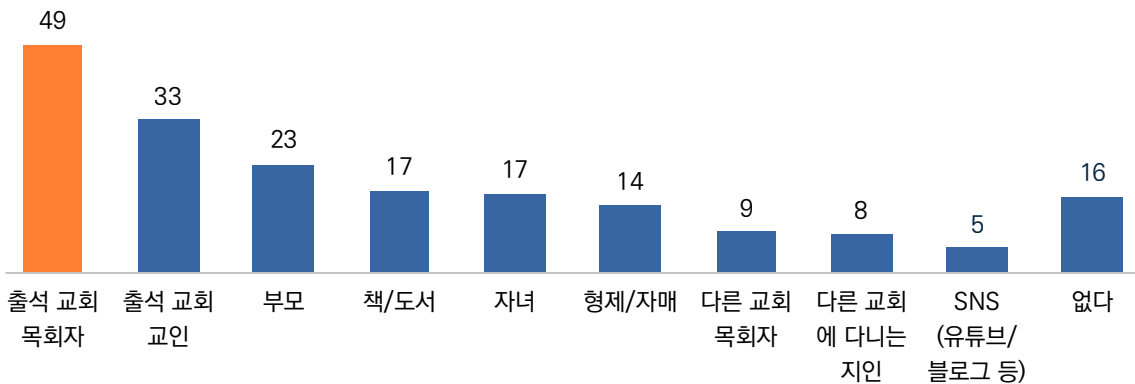
[그림] 30~40대와 비교하여 현재 신앙 평가 (50세 이전에 신앙생활 시작한 응답자 대상)



◎ 5060세대의 신앙에 ‘목회자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 ▶ 5060세대의 신앙에 ‘출석교회 목회자(49%)’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2030세대에서는 부모의 영향력(60%)이 가장 컸던 것과 비교하면 목회자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 5060세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이 필요하며, 목회자의 도덕적, 사회적 건강성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
- ▶ 같은 교회 교인의 영향력도 33%나 되었는데, 이를 통해 소그룹과 같은 신앙공동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소그룹에 대해서는 「넘버즈」127호 참고할 것)
- ▶ 부모(23%), 자녀(17%), 형제/자매(14%)의 영향력도 상당하므로 가족 간에 선한 신앙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정 신앙 나눔 활동(보기:가정 예배 등)을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고려할만하다. (크리스천 가정에 대해서는 「넘버즈」 95호, 96호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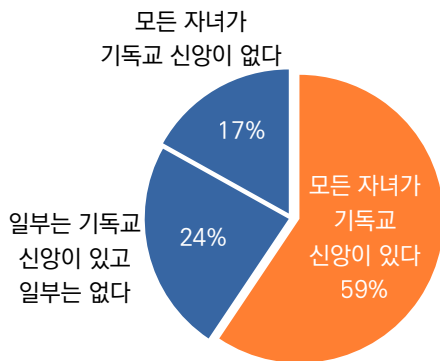
[그림]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매체 (1+2순위, %)



◎ 자녀 신앙 전수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 ▶ 5060세대들 가운데 ‘모든 자녀가 기독교 신앙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9%였다.
- ▶ ‘일부는 기독교 신앙이 있고 일부는 없다’가 24%인 것까지 포함하면 부모의 신앙 전수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 ▶ 단, 이 결과가 자녀의 신앙 수준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림] 자녀 신앙 여부 (자녀있는 응답자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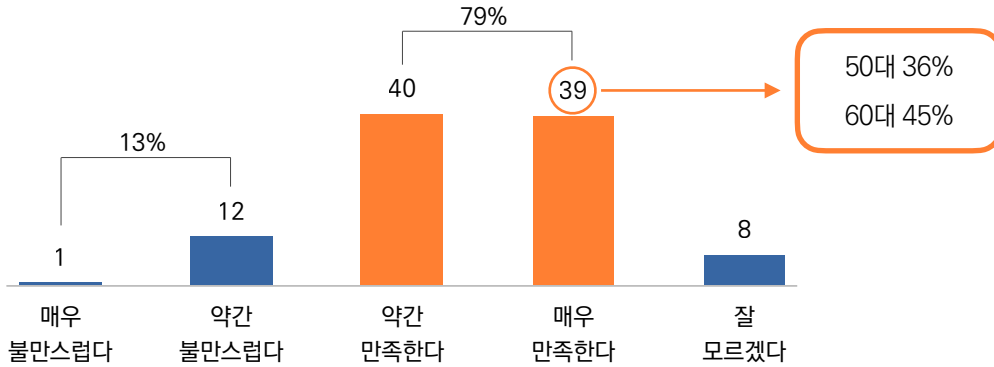


03

출석교회 만족도 매우 높다(79%)!

- ▶ 출석교회에 대한 만족도는 79%였는데, 이 가운데 '매우 만족'이 39%, '약간 만족'이 40%로 '매우 만족'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매우 만족' 비율은 50대 36%, 60대 45%로 60대가 더 높았다.
- ▶ 이는 교회 리더십의 핵심 연령층인 5060세대가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회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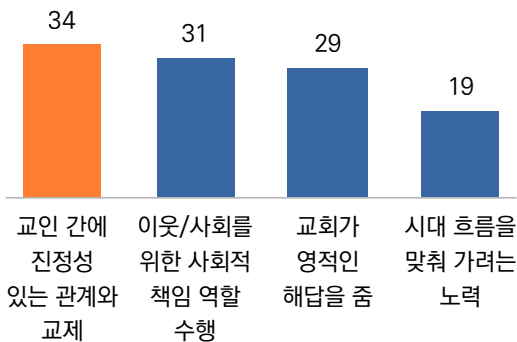
[그림] 출석교회 만족도 (교회 출석자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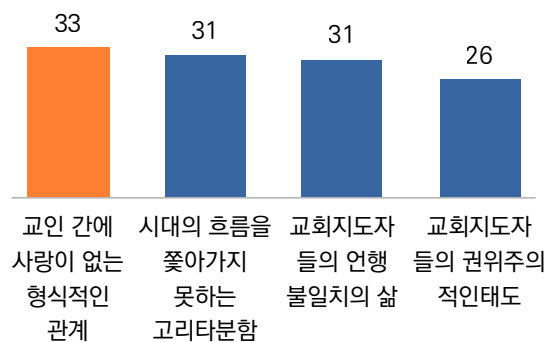
◎ 공동체성이 5060세대의 교회 만족도를 좌우한다!

- ▶ 교회 만족 이유는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34%),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31%)이었고, 불만족 이유는 '교인 간에 사랑이 없는 형식적 관계'(33%)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31%)이었다.
- ▶ 출석교회에 대해 만족과 불만족을 형성하는데 특정 요인이 결정적이지 않고 여러 요인이 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만족과 불만족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인들 간의 관계와 교제'였다.
- ▶ 교회의 여러 모임과 사역에서 기능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공동체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출석교회 만족 이유 (1+2순위, 상위 4개, %)



[그림] 출석교회 불만족 이유 (1+2순위,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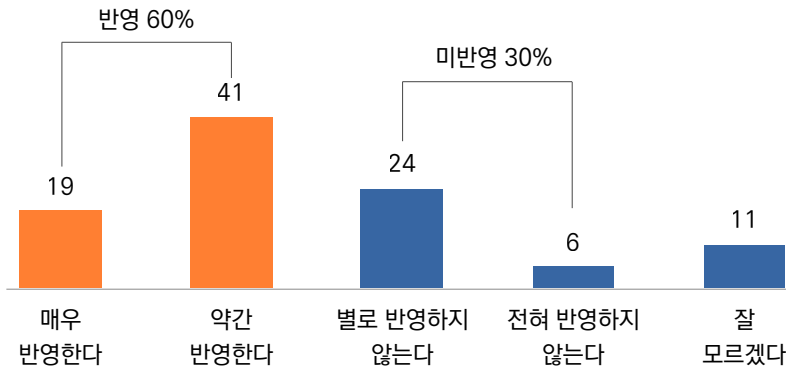


04

교회 의사 결정시, 교인의견 '반영되지 않는다' 30%!

- ▶ 교회 의사 결정시 '교인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였다. ('매우 반영' 19% + '약간 반영' 41%)
- ▶ 이 결과는 '반영되지 않는다'(30%)보다 두 배 더 높은 비율이지만, 60%라는 수치 자체는 교회 의사 결정의 민주성 측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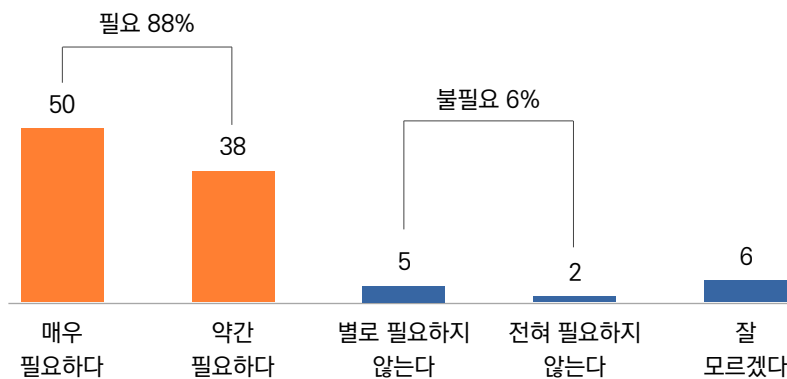
[그림] 교회 의사 결정시 전체 교인 의견 반영 여부 (%)



◎ 교인 의견 수렴 기구가 '필요하다' 88%!

- ▶ 전 교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해 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해서 대부분의 5060세대는 찬성하였다.
- ▶ 특히 '매우 필요'가 50%나 되는 것을 보면 전 교인 의견을 수시로 대변하는 상설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전 교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구 설치 필요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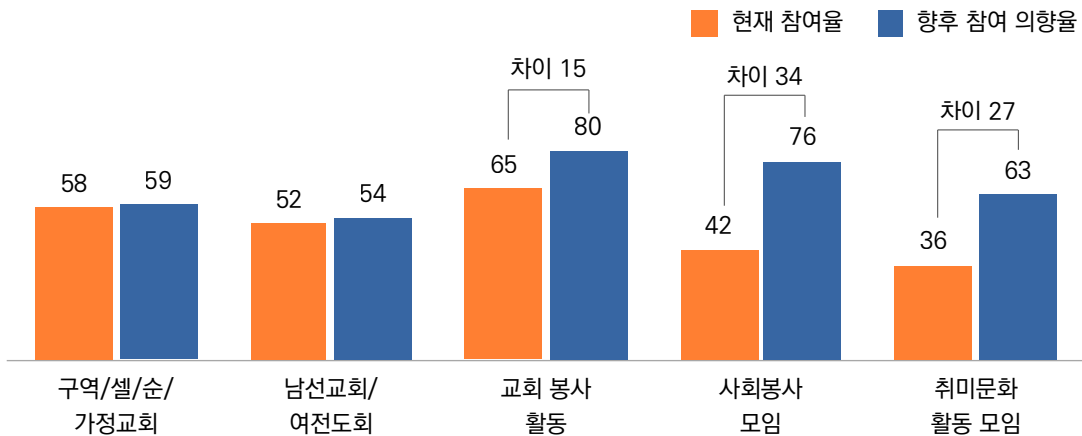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개인의 취향에 따른 교회 모임 필요성 높다!

- ▶ 5060세대 가운데 현재 구역/셀/순/가정 교회등 교회 소그룹 모임(58%)과 남녀선교회/전도회(52%) 참여 비율은 50%대였다.
- ▶ 그런데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회 활동/모임과 비교하면, 교회봉사활동, 사회봉사 모임, 취미/문화활동 모임에 대한 참여 의향율이 매우 높았다.
- ▶ 교회 조직 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림] 현재 참여하는 교회활동/모임 vs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회활동/모임 (참여율='매우+약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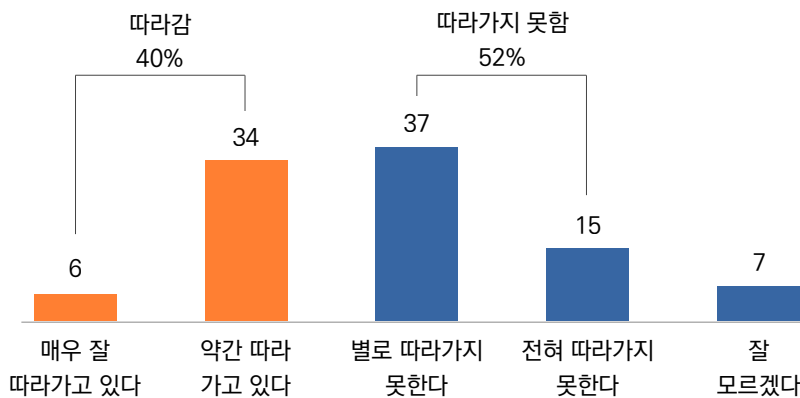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임

05

교회가 시대 변화에 '뒤처진다' 52%!

- ▶ 교회가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지 여부에 대해 '따라간다' 40%, '따라가지 못한다'에 52%가 응답하였다. 교회가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을 보인 것이다.
- ▶ 교회의 시대적 변화에 둔감할 수 있는 5060세대가 이러한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위기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교회의 시대 변화 적응 여부에 대한 의견 (%)



시사점

‘신중년’, ‘액티브 시니어’ 등등 5060세대를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요즘 5060세대는 나이가 들어서도 젊고 활기찬 삶을 살며 사회 곳곳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한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삶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 주는 이 세대가 예전의 5060세대와 다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신중년’, ‘액티브 시니어’이다.

화려한 수식어의 이면에는 중년 세대의 고단함이 짙게 배어있다. 이들은 치열했던 경쟁을 뚫고 지금까지 살아 남았지만 이제 직장에서 은퇴 나이가 되었고, 은퇴 후의 생활 대책은 서 있지 않아서 불면의 밤을 지낸다. 은퇴 후에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러한 비정규직을 떠도는 피곤함 속에서 살아간다. 인생의 고민이 그 어느 세대보다 많은 세대가 5060세대이다.

게다가 사회적 변화는 너무 빨라서 적응하기도 쉽지 않다. 식당을 가면 키오스크라는 낯선 기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다가 슬그머니 빠져 나오는 비애를 겪기도 하고, 자신들이 젊을 때 겪으면서 경험했던 것을 후배들에게 말하려고 하면 끈대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경험이 자산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당황스러운 세대가 된 것이다.

5060세대는 교회에서 어떤 세대보다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불릴만큼 인구 수가 많은 5060세대이므로 교회에서도 숫자적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젊을 때부터 온갖 교회 일은 도맡아 왔는데, 그 밑 세대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5060세대가 아직도 교회에서는 굵은 일까지 도맡아해야 하는 일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세대는 교회의 중직자로서 교회의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안고 있다. 교인은 고령화되는데 젊은세대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새로 전도되는 사람도 없고, 청년은 성인이 되고나서 교회를 떠나는 현실 앞에서 교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오롯이 5060세대가 떠안아야 한다.

5060세대의 신앙의식을 다룬 이번 「넘버즈」 138호의 결과를 통해 몇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는 5060세대가 겪는 상실감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불안한 미래, 힘겨운 현실 앞에서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 5060세대에게 교회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비록 사회에서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이 무가치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전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5060세대가 신앙 안에서 삶의 역경을 이길 힘을 찾고, 무가치해 보이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발견하고, 이제는 성장하여 흠어진 가족들이 한 신앙 안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

두 번째로 5060세대가 교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면 5060세대는 전통적인 교회 소그룹(구역/셀 등)과 성별과 나이로 묶이는 남녀전도회/선교회보다는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에 따라 모이는 봉사 모임, 취미문화활동 모임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았다.(8쪽) 따라서 개인의 관심과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소그룹에 참여하게 하여 5060세대가 자신의 관심을 충족시키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임이나 활동의 기저에는 친밀한 인간 관계, 진정성있는 교제와 함께 영적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편화된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인간 관계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임은 그 성격과 목적이 무엇이든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이다. 교회는 제도상 민주적이지만 현실은 일부 장년층에 의해 의사 결정이 주도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세대가 부상하면서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폭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비록 그것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가야 할 길인데, 그것을 5060세대가 주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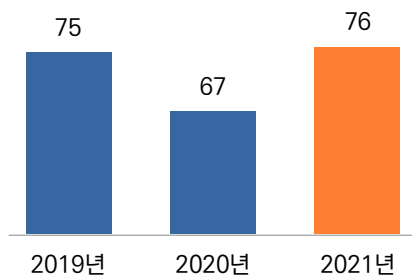
1. [초·중·고 사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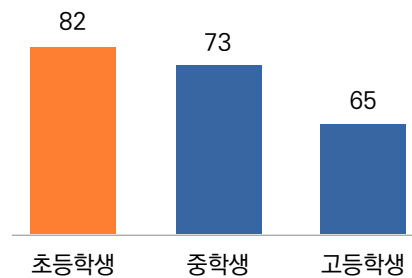
초·중·고 학생, 4명 중 3명(76%) 사교육 받고 있다!

- ▶ 최근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76%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초중고로 나누어 사교육을 받은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82%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73%, 고등학생 65% 순이었다. 사교육 비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감소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사교육 참여율 (초중고 전체, %)



[그림]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202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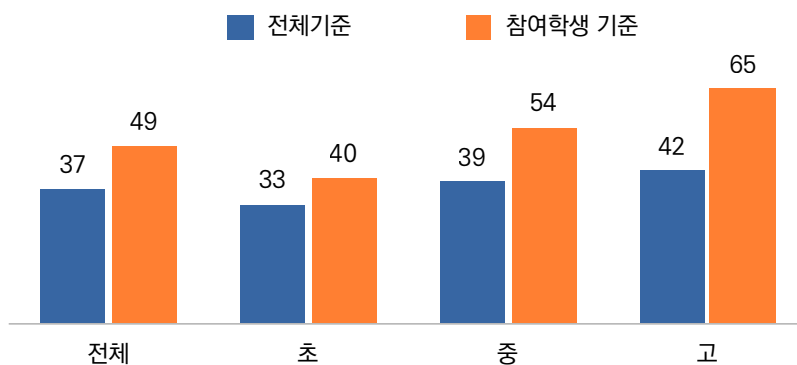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교육부,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22.03.11.,(초중고 약 3,000여 학급 대상, 2021.03-05, 2021.07-09(6개월))

◎ 1인당 사교육비(참여 학생 기준), 49만 원!

-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37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에서는 고등학교가 가장 높았고(42만 원), 중학교(39만 원), 초등학교(33만 원) 순이었다.
- ▶ 이를 참여 학생 기준(1인당)으로 보면, 전체 기준 49만 원이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65만 원, 중학생 54만 원, 초등학교 40만 원으로 나타났다.
- ▶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사교육비가 평균 78만 원으로 늘어나,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경우, 그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021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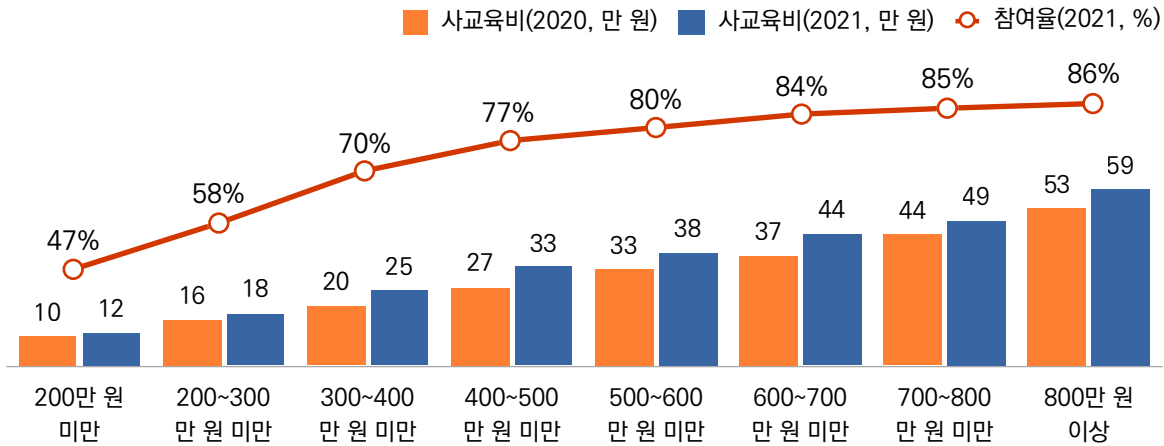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교육부,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22.03.11.,(초중고 약 3,000여 학급 대상, 2021.03-05, 2021.07-09(6개월))

◎ 가구소득 최하위층과 최상위층, 사교육비 5배 차이

- ▶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가장 낮은 구간인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는 12만 원, 가장 높은 구간인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는 59만 원으로 두 계층의 격차가 5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 ▶ 참여율 부분에서도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47%,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86%로 조사됐다. 이는 빈부격차가 교육 기회의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2020 vs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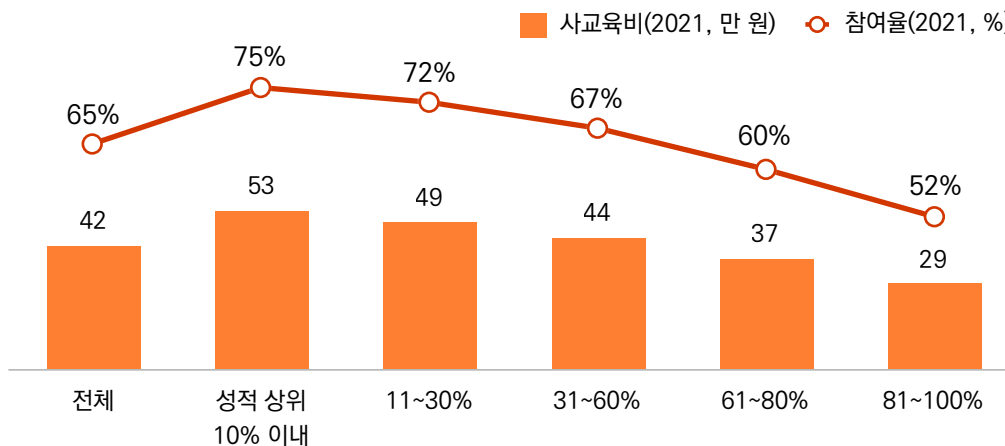


*자료 출처: 통계청·교육부,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22.03.11.(초중고 약 3,000여 학급 대상, 2021.03-05, 2021.07-09(6개월))

◎ 부자집 학생일수록 공부 잘한다

- ▶ 사교육비는 학생 성적과 관련이 깊다. 고등학생의 성적 수준과 사교육비 관계를 살펴보면,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사교육비는 53만 원인데 반해, 하위 20% 학생은 29만 원으로 상위 10% 학생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는 빈부격차가 교육 격차에 크게 영향을 주는 지표로써 이 학생들이 어른이 될 경우, 교육 수준이 부의 축적 측면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래 시대에 양극화 현상은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전체 고등학생의 성적 구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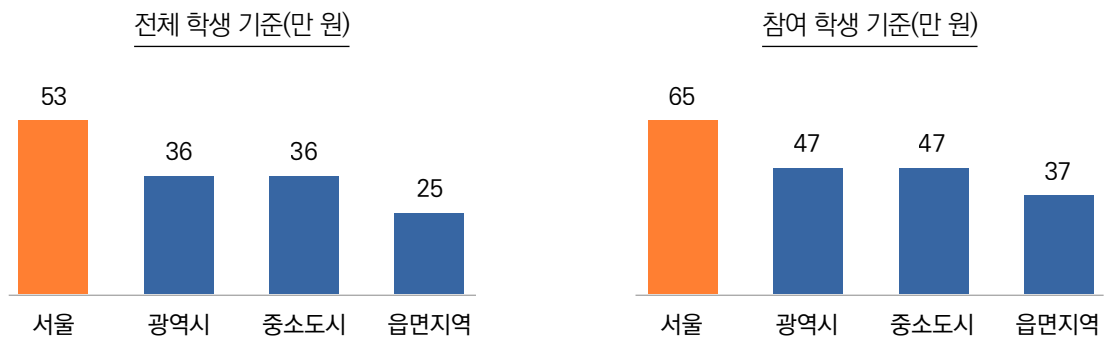


*자료 출처: 통계청·교육부,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22.03.11.(초중고 약 3,000여 학급 대상, 2021.03-05, 2021.07-09(6개월))

◎ 서울의 사교육비, 타지역 대비 압도적으로 높아!

- ▶ 사교육비는 학생 성적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격차를 보인다. 지역별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 기준으로 서울 53만 원, 광역시 36만 원, 중소도시 36만 원, 읍면지역 25만 원으로 서울과 읍면지역 간의 사교육비 차이가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참여 학생 기준으로도 역시 서울 65만 원, 광역시 47만 원, 중소도시 47만 원, 읍면지역 37만 원으로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다.
- ▶ 이처럼 서울과 타 지역간의 사교육 격차가 크다는 것은 서울에 교육수요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울과 타지역 간의 지역 격차가 향후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지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21년 기준)



*자료 출처 : 통계청·교육부,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22.03.11.,(초중고 약 3,000여 학급 대상, 2021.03-05, 2021.07-09(6개월))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89호\(2022년 3월 5주\) - 대통령 당선인 직무 수행 전망 등](#)
[청년층·고령자 투표수 격차 커져 '질투정치' 낱을 판](#)
 중앙일보_2022.04.01.

◎ 사회 일반

[노인 10명 중 3명 "몸 아파도 도움 요청할 사람이 없다"](#)
 국민일보_2022.03.31.

[오미크론 사망 95%가 고령환자...관건은 '치료제 제때 처방'](#)
 노컷뉴스_2022.03.30.

[13세 모친살해범, 성추행범... 강력범죄 촉법소년 작년에만 8474명](#)
 조선일보_2022.03.30.

[빛 쌓이는 직장인...1년 만에 450만원 급증](#)
 매일경제_2022.03.29.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13만원에 10분이면 날아갑니다](#)
 조선일보_2022.03.31.

[콜센터 상담노동자 48%, 저임금·감정노동에 극단적 선택 생각](#)
 연합뉴스_2022.03.30.

[코로나 후 2배로 커진 배달음식시장...2월 일평균 802억원 '최대'](#)
 연합뉴스_2022.04.01.

[2030 남녀, 인권의식 온도차...'여성인권' 두고 간극 가장 커](#)
 연합뉴스_2022.04.03.

[한국은 5등 안에도 못든다...'BTS 소비국' 의외의 1등](#)
 중앙일보_2022.03.30.

[지금 식량위기?... 10~20년 내 기후위기로 더 큰 충격 온다](#)
 국민일보_2022.03.31.

◎ 청소년 / 청년

[만 19~24세 청소년 4명 중 1명, 중등도 이상 우울 겪어](#)
 연합뉴스_2022.03.30.

[MZ세대는 '가성비' 보다 '가심비'...비싸도 착한제품 고른다](#)
 매일경제_2022.04.04.

[청년 33% "첫 일자리, 비정규직으로 시작"...평균 월급 213만원](#)
 연합뉴스_2022.04.03.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경제**

[국내 500대 기업, 작년 248조원 흑자...매출·영업이익 역대 최대](#)

연합뉴스_2022.04.03.

[IMF “한국 물가인상률 >성장률... 스태그플레이션 대응 필요”](#)

국민일보_2022.03.30.

◎ **국제**

[일본은 왜 '싸구려 나라' 됐나... '나쁜 엔저'로 경제 휘청](#)

연합뉴스_2022.04.02.

◎ **건강**

[가벼운 음주는 건강에 좋다?...알고 보니 술 보다 이것 때문!](#)

주간조선_2022.03.29.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년기 우울증 위험 갑절 됐다](#)

연합뉴스_2022.03.29.

◎ **기독교 / 종교**

[지역 청년 사역자·성도 팬데믹 속 교회를 말하다](#)

국민일보_2022.03.29.

[세례 장병 수, 팬데믹 후 84% 줄었다](#)

국민일보_2022.04.05.

[미 가나안 신자 57% “18세 이전에 교회 떠나”](#)

국민일보_2022.03.29.

[미국 Z세대 3분의 1 “무신앙”... 이전 세대보다 높아](#)

크리스찬타임스_2022.04.03.

◎ **이슈큐레이션**

[교회 내 ‘이대남 이대녀’ 갈등? 사역자들에게 물었더니...](#)

아이굿뉴스_2022.03.29.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문호교회, 미디에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삼천포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해설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사단법인 아시아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 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컬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지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 연구소 소식 |

- **(사)한지터**(대표 박종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와 우리 연구소가 지난 2022년 4월 1일 양기관의 업무협약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사)더조은세상**(이사장 박정곤 목사, 고현교회)과 우리 연구소가 지난 2022년 4월 4일 양기관의 업무협약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MOU 체결식을 통해 양 기관이 더욱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